



제5 활력증후를 위하여

암성 통증관리 활성화 방안

통증은 암 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괴로운 증상중의 하나이다. 암의 진단초기에 있거나 혹은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30~50퍼센트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에는 약 60~70퍼센트, 말기의 경우에는 80~90퍼센트 정도가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암에 의한 통증은 적절한 원칙과 프로그램에 따른다면,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충분한 통증조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암 환자의 통증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적절한 통증관리의 장애 요인을 찾아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정기적인 평가와 기록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 정도를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강하며 불충분한 통증평가가 효과적인 통증관리의 가장 중요한 방해요인임을 보여 주듯이 통증의 평가는 통증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

암 환자에게서 통증은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의 4가지 활력증후(vital sign)와 함께 5번째 활력증후이며 심한 통증은 응급상황으로 적절한 통증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평가된 통증을 의무기록에 기록하여 적절히 조절되지 않은 통증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의료인의 주의를 끄는 경고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는 주사나 입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 환자가 자발적으로 말하는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통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

통증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객관화 할 수 있도록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의 자가보고는 통증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환자의 통증보고를 신뢰해야 한다

둘째, 암 통증관리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통증관리의 적절성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통증평가 방법과 진통제의 약리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마약진통제에 의해 야기되는 호흡억제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같은 부적절한 태도가 잘못된 치

**암에 의한 통증은 적절한 원칙과 프로그램에 따른다면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충분한 통증조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료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미래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교육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통증관리가 의료전달체계에서 우선 순위임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인 참여를 통한 제도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통증관리의 향상은 의료인을 훈련시키는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도 달려 있다

각 병원들은 소속 의료인들의 통증관리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전환시키는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통증관리 변화를 제도화하는 방법이 의료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계, 자존심, 자율성을 위협한다고 느낀다면 이러한 변화에 반대할 것이며 결국 통증관리의 제도적인 정착은 실패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암 통증관리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지라도 자신들이 이 문제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는 의사는 드물 것이다

의사들은 본래 자신들의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암 통증관리에 관한 자신들의 태도와 지식이 기대수준 이하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끝으로 속효성 경구용 모르핀 등 다양한 진통제의 보급이 시급하다.

해결되지 않는 통증은 많은 암 환자들의 퇴원을 주저하게 하며,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기도 한다 이 외에도 많은 환자들이 집에서

통증을 참고 견디어야 하거나, 안락사 등 윤리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일반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처음 발생하거나 조절되던 통증이 악화되어,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을 결정할 때 속효성 경구용 모르핀을 통증관리 지침에 따라 처방하여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량을 증량하여 투여함으로써 유지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암성 통증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

매년 10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6만 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며, 전체 암환자의 절반 이상이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사망하고 있다.

특히 임종에 이르는 마지막 2~3개월은 대부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은 인구당 계산하면 선진국의 5분의1 수준으로 조절이 가능한 통증을 앓으면서 고통 속에 사망하는 현실이다

암성 통증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통증조절에 대한 지식의 부족, 환자의 통증 호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 법적 규제에 대한 우려로 취급 기피 등이 있다

특히 다양한 진통제의 부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및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꺼리고 있는 등의 의학적 문제 뿐 아니라 진통제 투약을 기피하고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과 진통제의 부작용 우려 등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투약을 기피하는 환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 취급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으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통증으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집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임종하는 환자는 속효성 경구용 마약진통제가 없어 불필요하게 주사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로 인해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은 마약성 진통제를 취급하지 않아 약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많은 양의 주사용 마약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입원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어 임종까지 계속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통증으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집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임종하는 환자는 속효성 경구용 마약진통제가 없어 불필요하게 주사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규제

마약이라 함은 앵속 · 아편 · 코카인 및 아편에서 추출되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천연마약과 염산페치딘, 메사돈과 같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구분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되고 있는 마약 성분의 종류는 약 110여 종에 이른다.

마약은 필요 불가결한 의약품인 동시에 남용될 경우 의존성에 의한 중독으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원료가 되는 양귀비 등의 재배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중독성이 매우 심한 헤로인의 취급이 일체 금지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엔 마약통제위원회의 승인 하에 마약 원료를 전량 수입하여 제제의 공정을 거쳐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수술시 진통이나 마취 또는 암 환자의 진통에 사용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관리의 문제점

의료용 마약관리의 문제점으로 식약청에서는 의료용 마약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마약의 수입,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으로 수급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반면 의료기관의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암환자의 증가로 다양한 제형 및 용량의 마약이 필요하나 행정부서의 과도한 규

제로 다양한 제품이 없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마약도 의료보험수가의 규제에 임상적으로 필요한 약품 및 용량을 처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약 사용시 일일별 재고관리, 잔량관리, 파손 마약 관리 등 관리업무가 많아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구비하는 것도 어려워 1,2차 병원에서는 마약취급을 기피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국립암센터 등 병·의원에서 요구하는 의료용 마약들은 대부분 국내 기허가와 비교하면 유효성분의 함량증감, 새로운 투여경로 등과 같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해당하는 품목이므로 이러한 제품의 허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안전성 관련 자료,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및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국내 제조사가 제출 할 수 있는 문헌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허가의 진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의 제일 목적은 최대이윤 추구에 있는 바, 상기 제품들에 관한 원가율과 예상 상한가를 대비하였을 때 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이윤확보가 불명확하다. 기업의 영업과 직결되는 현실적 문제로는 시장성확보가 있다.

조사결과 상기 제품들의 필요성은 병원마다 인정하지만 현재까지 기허가제제를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으므로 만약 시장에 출시된다면 단지 편리성에 의하여 몇몇 병원에서 흥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시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료용 마약 관리 활성화 방안

암 환자의 통증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적절한 통증관리의 장애 요인을 찾아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원칙적으로는 통증평가 및 약물요법 등에 대한 국가적인 암성 통증관리 지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의료인을 위한 통증관리 교육 지침서 및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통증관리 교육자료가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료 관행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통증관리 평가를 통한 향상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속효성 경구용 모르핀의 생산·판매 및 다양한 진통제의 보급이 필요하다.



위 내용은 7월 10일 국립 암센터가 '효과적인 암성 통증관리'를 주제로 주최한 암치료 문화 심포지움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